



# 동(銅)이 동나졌네

김현회 /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주를 벌일 태세다. 원유와 곡물에서 시작해 철강재가 품귀를 보이더니 이제는 비철금속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이다. 특히 구리(銅)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 먼저 그래프로 단기 변동과 장기 변동 상황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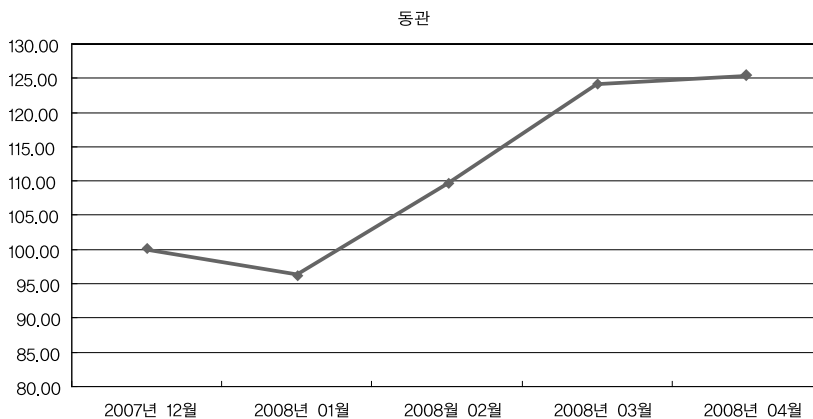
아래 그래프는 지난해 12월 동관의 시장 평균 가격을 100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후 4개월간의 변화 양상이

다. 30% 가까이 올랐다. <그림 2>의 장기 변동 양상을 보면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990년부터 2002년까지 큰 변화가 없던 전기동의 가격은 2003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최근 가격의 변화는 달러화 약세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2003년 이후 가격 급등의 요인은 누가 뭐래도 신흥 자본주의 편입국 즉 중국, 인도 등의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향후 가격 안정 조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3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에 다소 안정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모자라는 동을 그동안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 왔는데, 이제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수출을 통제하고 나섰다. 경제 성장으로 가뜩이나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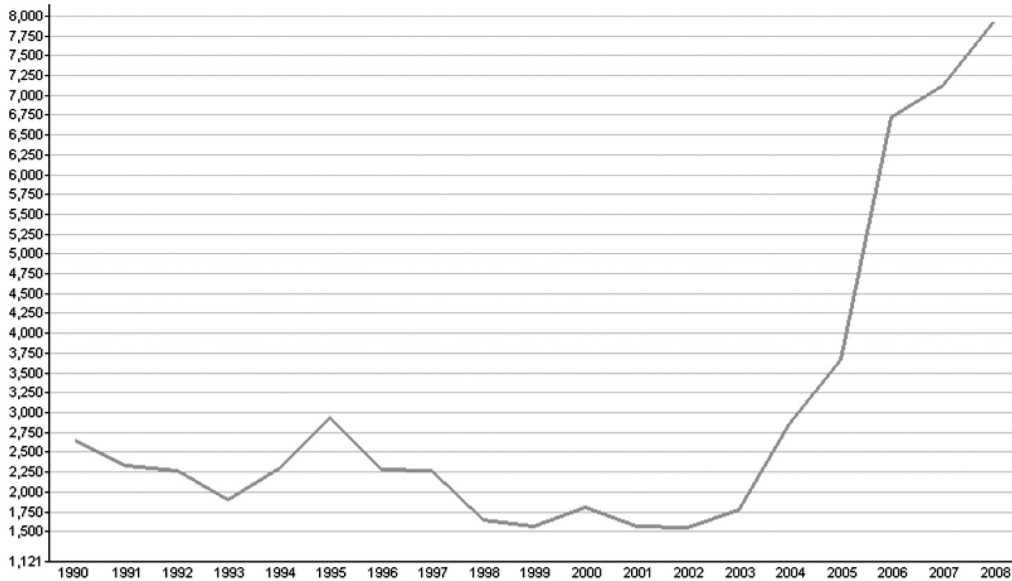
<그림 1> 전기동 가격의 단기적 변화 추이



(자료 제공 : 원켄네트웍스 2008년 4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주를 벌일 태세다. 원유와 곡물에서 시작해 철강재가 품귀를 보이더니 이제는 비철금속, 특히 구리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 가격급등의 요인은 신흥 자본주의 편입국의 수요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향후 가격 안정 조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림 2〉 전기동 가격의 장기적 변화 추이



(자료 : 원켄 네트워크, LME 재인용, 2008년 4월, 단위 US\$/ton)

올림픽도 한 몫을 더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동 수요는 하반기에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도 아직은 동 재고가 남아 있어 당분간 급격한 오름세는 막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료 수입이 어려운 가운데 재고마저 동나면 동란(銅亂)이 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한가지 기뻐할 것은 미국 주택 경기 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한 채의 집을 짓는데 0.19913톤의 전기동이 소요된다. 주택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면 전기동 수요도 감소할 것이 자명한 이치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면 대책도 간단하다.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기다리다 떨어진 후에 사면 되

고, 오를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될 때는 미리 사두면 된다. 하지만 그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높은 가능성에 운명을 맡기고 특정 대책을 세우는 일 뿐이다.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소간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다.

독자 여러분은 어디에 가능성을 두고 있는가? 판단이 섰으면 우선 그에 대응하는 특별 대책을 세우라. 그리고 상황에 관계없이 남들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 보아야 한다. 제조 및 판매 거래선을 다양화하거나 최근 대한설비건설협회 워크샵에서 언급됐던 공동구매도 그 대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는 외롭지만 뭉치면 힘이 되기 때문이다. ☺

“상황에 관계없이 남들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제조 및 판매 거래선을 다양화하거나 공동구매도 그 대안이 될 것이다.  
하나는 외롭지만 뭉치면 힘이 되기 때문이다.”